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아가티 순교자

루가 제17주일 / 탕자 주일

성 이시도로스 수사

제2조 / 조과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A 212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찬양송 / 164, B 157
- 성당 찬양송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시기송 / 164, B 159
- 사도경: 고린토 전 6,12-20 / 봉독서 418
- 복음경: 루가 15,11-32 / 133, B 8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아가티 순교자

교회에서 2월 5일을 축일로 기념하는 성 아가티 순교자는 3세기에 사셨습니다. 성녀는 혼인하지 않고 평생 동정으로 사셨고,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험박으로 성녀를 굴복시키려 했던 시칠리아의 우상숭배 지도자와 나눈 대화는 성 아가티 순교자의 용감함과 굳건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성녀께서는 강력한 힘과 용기로 그리스도께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으로 상냥하고 연약한 소녀들은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이로써 인간이 드리는 모든 예배 중에 가장 기쁘고 참된 예배인 삶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로마 12:1)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I고린토 15:58)

☞ 지난 주에 이어 계속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은 신중한 주의와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자주 교회를 바꾸고, 예비자 교육과정을 조금하듯 빨리 끝내고, 가능한 빨리 세례를 받으려하는 것을 문제 삼아야만 합니다. 굳건함 없이 뭐든 쉽게 갈아치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황당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로도 이와 비슷한 행위들에 대해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느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 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갈라디아 1:6)

위에서 언급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굳건함을 지니지 못하는 것은 참 믿음을 찾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왜 교회를 바꾸었냐고 물어보면 교리문제 때문이라고 답변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혹은 “성직자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요.” 또는 “누가 나에게 심한 말로 모욕을 주어 교회를 안 나 갑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바꾸거나 안 나가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모욕을 주었다 한들 그것이 그리스도와 의 관계를 끊고 영적 가족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단절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주

님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 중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나게 합니다. “어떤 씨앗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타 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마태오 5:5~6)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뿌리가 내리지 않아 그 믿음이 오래 가지 못하고 시련의 때가 오면 곧 떨어져 나가는 사람”(루가 8:13)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께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I 고린토 15:58) 정교회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히 어려운 투쟁입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의 수많은 성인들을 표본으로 삼고 따르다면,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싸워 이긴 거룩한 순교선열, 천상의 승리 화관을 받으신’ 그들은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순교의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기 위해 인내를 가지고 거룩한 피를 흘리면서 이겨내셨습니다.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 주겠

☞ 3면으로 계속됩니다.

성인들 : 살아있는 협조자이며 친구들

트리폰 수도원장 3

신신학자 시메온(949-1022)에 따르면 촛불은 성인들의 성화 앞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성인들이 살아있으며 눈부시게 빛이 나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비칠 때이다.

성인들은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운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삶으로 드러나는 모범을 통해 성인들은, 우리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 (베드로 2서 1:4)이 되는 길을 가리켜 준다. 천국에 있는 수많은 증인인 성인들은 우리와 함께 성삼위 하느님을 경배하면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다. 우리의 친구인 성인들은 우리를 위해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중보하고,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길에서 투쟁할 때 성인들이 보여준 삶의 모범들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는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곧, 첫째는 자기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둘째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성인이 있다. 성인은 그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한 사람이다.

우리는 성인을 공경하지만 예배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이신 성삼위 하느님께만 드린다. 우리는 성인과 순교자들의 성해만큼이나 성인의 성화(이콘)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러나 이 공경은 성화 자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성화에 표현된 인물, 곧 성화의 원형과 관련된 것이다.

정교회 성당의 내부 벽은 성인들의 이콘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가 구름과 같은 증인들, 곧 성인들로 둘러싸여 있음과 이 지상에서 ‘투쟁하는 교회’가 천상의 ‘승리한 교회’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하는데, 그것은 성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이다.

성인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립니다!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됩니다.

다.”(요한묵시록 2:10)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I 고린토 15:58)은 올해 제 14회 대교구의회의 주제입니다. 위에서 언

급한 내용들은 우리 개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4면으로 계속됩니다.

☞ 3면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가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여, “하느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오는 온갖 힘을 받아 강해져서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골로사이 1:10~11)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한국 정교회는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며 신도의 수효가 날이 늘어”(사도행전 16:5)가는 모습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소 식

대교구

■ 겨울 수련회

지난 1월 24~28일까지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이루어진 겨울 수련회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의 대주교를 비롯하여 예레미야 조정진 신부,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그리고 요한 보제와 여러 보조교사들, 주방 봉사자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24~27일까지 진행된 교회학교 겨울 캠프에는 약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고린토 전서 15:58)이라는 주제로 대주교님을 비롯한 여러 신부님들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함께 토론하고, 배우고,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면서 자신이 처한 처지에서 정교인으로 어떻게 매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눈썰매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매일 서로 친교를 나누는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7~28일에 이루어진 신데즈모스 수련회는 약 15명이 참여하여 같은 주제로 대주교님과 많은 영적 토론을 하였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결혼을 축하합니다

지난 1월 19일 (토요일) 인천 성 바울로 성당 교우인 루키아노스 김진성 군이 결혼성사를 통하여 레베카 정도랑(예비신자)을 배우자로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축만하신 은총과 축복으로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주간 예식

· 2월 10일(토) ▷ 영혼 토요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추도식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